율 통해 지켜진 붓다 가르침

금강스님의 계율 이야기

③ 계율을 제정한 이유

n’ etaṃ bhikkhave appasannānaṃ vā pasādāya pasannānaṃ vā bhiyyobhāvāya, atha kho taṃ bhikkhave appasannānañ c’ eva appasādāya, pasannānañ ca ekaccānaṃ aññathattāyā’ti.

汝所爲非, 非威儀, 非沙門法, 非淨行, 非隨順行, 所不應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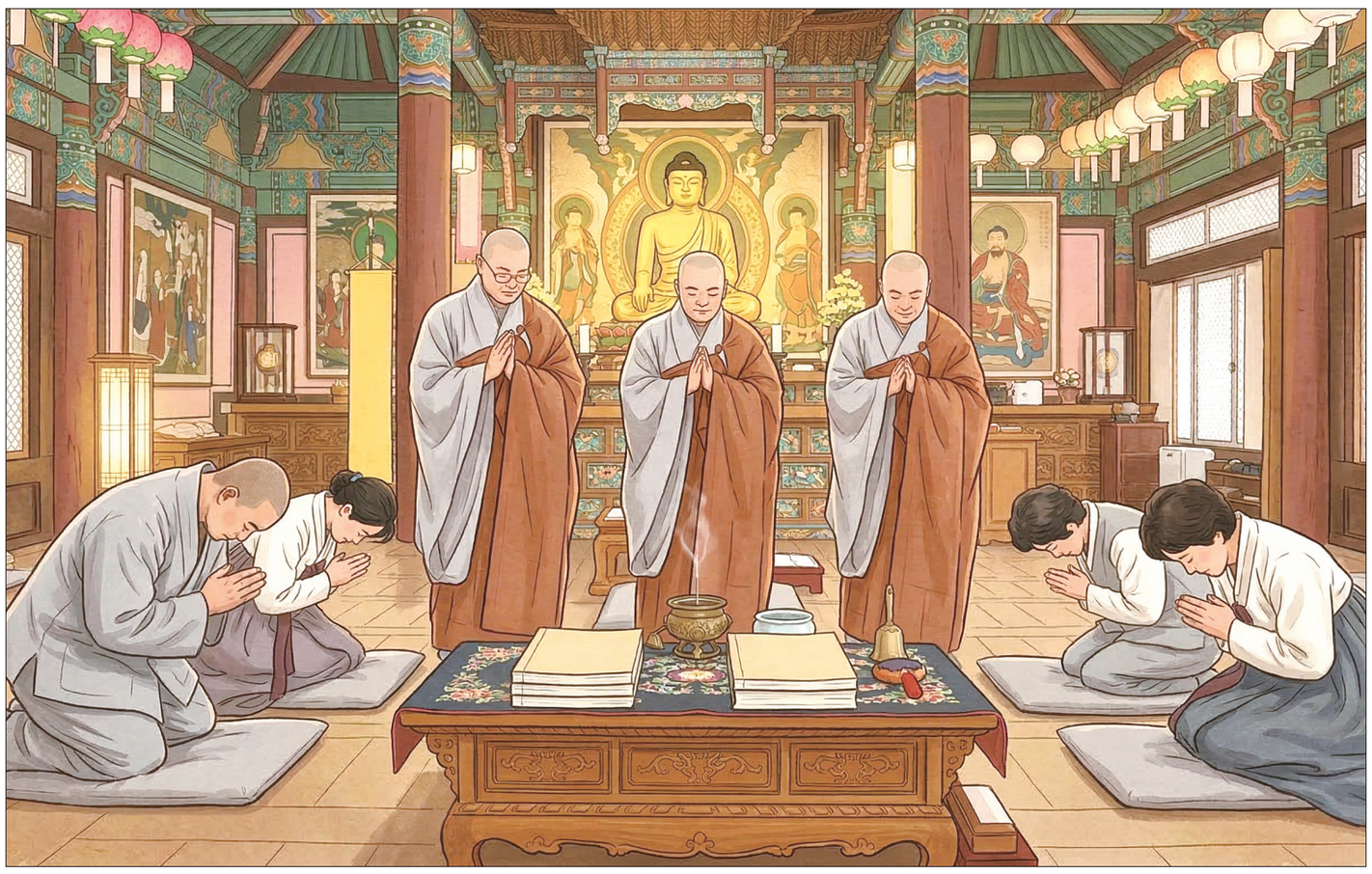
비구들이여, 그것은 아직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를 청정한 믿음으로 이끌고,

이미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를 더욱더 청정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그것은 오히려 아직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를 불신으로 이끌고,

이미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 가운데 어떤 자들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 여법하지 못한 비구들을 향한 붓다의 경책 –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붓다의 율 조문 제정, 타 종교와 차이점

수행·승가·사회, 불법 유지 위해 율 수립

제계십리서 율 제정 이유 열 가지 설명

바른 수행자 바라는 붓다 가르침 담겨

불교와 승가 유지 위한 율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다양성의 사회 속에서 계와 율이 승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작용하는지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다.

불교가 생겨난 당시 인도 사회도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시대였다. 인도 문화와 사회의 근본 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베다 사상 속에서 베다 문헌을 부정하며 다양한 자유사상가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시대였다.

당시 인도 사회는 윤회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바른 삶의 방식에 대한 자신들의 가르침과 윤리적 교리를 설한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다. 붓다 또한 모든 중생들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르침 외에도 불교와 승가 구성원을 위해 율을 남기게 된다. 붓다의 율 조문 제정은 불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규칙을 의미하는 율이 불교에서만 제정이 되고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단순하게 붓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승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율 조문의 제정은 승가의 구성원인 비구·비구니의 행동을 통제하며, 범계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동반하고 있다. 처벌을 동반하는 율은 승가 구성원들을 사회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승가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다양한 종교의 시대 속에서 불교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존속되도록, 구성원의 처벌 규정인 율을 제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율을 통해서 붓다의 진정한 가르침과 자비의 정신이 설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불교 비판 시대 분위기서 제정

붓다가 율을 제정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자. 우루벨라 지역 네란자라 강가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붓다는 이후 바라나시에서 5비구 제도를 시작으로 가섭 3형제, 산자야의 제자인 사리불과 목건련 등 많은 이들을 교화했다. 삼십 대 중반에 성도한 젊은 붓다는 제자가 천 명이 넘고, 노련한 대종교인인 가섭 3형제를 교화했는데, 이 일은 우루벨라 지역 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그리고 산자야 교단의 큰 두 제자인 사리불과 목건련의 교화를 통해 불교가 더 큰 교단으로 성장하게 되는 바탕이 됐다. 붓다가야에서 성도한 젊은 붓다는 젊은 나이에 많은 이들을 교화했다.

젊은 붓다의 등장으로 인해 불교는 급성장과 함께 세력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산자야 교단의 두 제자인 사리불과 목건련의 교화는 상대적으로 불교가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붓다의 등장과 가르침을 통해 많은 젊은 청년들이 수행을 위해 출가를 했고, 집안의 가장들 또한 가정을 버리고 출가하게 되면서, 불교를 향한 원망과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대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외도 사상가들은 불교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많은 공작과 모함을 하게 됐다.

삼십대 중반의 젊은 수행자인 붓다의 등장은 많은 이들의 공격 대상이었으며, 그로 인해서 붓다를 따르는 제자들 또한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감시와 공격·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젊은 붓다는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붓다는 자신의 제자를 징계해 다양한 논란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붓다는 율을 제정했지만, 첫 율 조문을 제정하기 전까지 붓다는 율 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붓다는 율 조문의 제정이 자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엄격한 계율 준수를 강요하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성취보다는 계율 엄수주의로 빠지는 것을 주의했을 것이다. 또한 형식화된 출가자의 생활과 지나친 도덕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했을 것이다.

제계십리서 조문 제정 이유 밝혀

율 조문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진 붓다가 생각의 변화를 일으킨 원인은 아마도 승가 구성원들의 범계 행위와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났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붓다는 율 제정에 앞서 ‘제계십리’라고 불리는 10가지 가르침을 통해 조문 제정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고 있다.

tena hi bhikkhave bhikkhūnaṃ sikkhāpadaṃ paññapessāmi dasa atthavase paṭicca : saṃghasuṭṭhutāya saṃghaphāsutāya dummaṅkūnaṃ puggalānaṃ niggahāya pesalānaṃ bhikkhūnaṃ phāsuvihārāya diṭṭhadhammikānaṃ āsavānaṃ saṃvarāya, samparāyikānaṃ āsavānaṃ paṭighātāya, appasannānaṃ pasādāya pasannānaṃ bhiyyobhāvāya, saddhammaṭṭhitiyā vinayānuggahāya.

諸比丘結戒 集十句義 一攝取於僧 二令僧歡喜 三令僧安樂 四令未信者信 五已信者令增長 六難調者令調順 七慚愧者得安樂 八斷現在有漏 九斷未來有漏 十正法得久住 欲說戒者當如是說.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열 가지 이익에 근거하여 비구들을 위해 학처를 제정하겠노라. 승가의 선성(善性)을 위해서, 승가의 안락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을 조복하기 위해서, 훌륭한 비구들의 안락한 거주를 위해서, 현세의 번뇌를 제어하기 위해서, 미래의 번뇌를 타파하기 위해서, 아직 신심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미 신심을 지닌 사람들의 신심을 보다 더 증장시키기 위해서, 정법의 구주(久住)를 위해서, 율에 대한 지지를 위해서이다.

붓다는 제계십리에서 수행과 승가, 사회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불법이 오래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율을 제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열 가지 이유 중에서 ‘현세의 번뇌를 제어하기 위해서, 미래의 번뇌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계율 엄수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수행을 통한 번뇌를 소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법이다. ‘아직 신심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미 신심을 지닌 사람들의 신심을 보다 더 증장시키기 위해서’는 재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보여 주고 있다.

‘아직 신심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출가한 비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번뇌나 탐욕을 던져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통해 신심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미 신심을 지닌 사람들의 신심을 보다 더 증장시키기 위해서’는 범행(梵行)을 행하며 율을 통해 자신을 제어하며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더 신심이 증장되기 때문이다.

젊은 붓다는 당시 사회의 상황에 의해 질투와 시기로 인해 비난과 비판을 받았지만, 그의 제자들은 재가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위해 승가 구성원의 행동을 제약하며, 재가자들로 하여금 존경과 공경을 받을 수 있도록 율을 제정했다.

그런 까닭에 승가는 사회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나 존경과 공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계십리의 내용은 승가의 구성원 스스로가 번뇌 극복과 범행을 통해 바른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바라는 붓다의 가르침이 담긴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승가가 스스로 자정 작용을 통해 이 사회 속에서 살아오며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제계십리는 다양한 종교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불교를 선택하고 붓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이유를 보여 준다.



금강 스님
해인총림율학승가대학원
대학원장 직무대행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6월10일 출발~14일 도착
▶ 동참금 : 149만원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500년전에 조성된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화현처 오대산 순례
6월07일 출발~6월11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 임제선사 순례
출발일 : 5월 27일 출발~6월 2일 도착
▶ 동참금 : 18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6월04일 출발~6월1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보로부두르 대탑은 세계최대의 불탑으로 462개의 벽면에
부처님의 생애가 조성되어 있으며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4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도 조성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6월18일 출발~6월22일 도착(5일간)
▶ 동참금 : 문의

인도 히말라야 라다크 순례 8일
고색창연한 티베트 사원들과 천년벽화의 신비 알치곰파
그리고 유명한 헤미스사원 축제
6월21일 출발~6월28일 도착
■ 일정: 델리-라다크(레)-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호수-레-델리
▶ 동참금 : 369만원

티베트 순례 칭짱열차 8일
라싸-갼체-시가체-삼예-칭짱열차-서녕-서안 등
티베트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 출발~6월13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6월16일 출발~7월01일 도착
▶ 동참금 : 570만원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일
10월02일 출발~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279만원

인도 관광여행 9일
10월02일 출발~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카주라호-잔시고성-아그라-자이푸르-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6월25일 출발~6월29일 도착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